

부처님 가르침 현대적으로 해설한 길잡이

이종표 교수가 말하는 삼귀의에서 사후서원까지



불교란 무엇인가
이종표 지음
종이거울
1만4000원



문은 사람들에게 '불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책은 삼귀의에서 시작해 사후서원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저자가 삼귀의는 불교의 출발점이고, 사후서원은 불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저자는 말한다.

"참된 진리에 의지해 생사의 고해를 벗어 나서 모든 불자가 함께 부처님 세상을 이뤄 가는 것이 불교이다"라고.

조동섭 기자

동화로 만나는 부석사 창건 설화



의상이 사들러 알려 준 덕분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어. 왕은 고마워하며 의상에게 새 절을 지으라고 했지. 의상은 절터를 찾아다녔어. 그러다 영주에 있는 봉황산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지. "절을 세울 만한 복되고 신성한 산이로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산적들이 모여 명을 즐기고 있었어.

"그제 밤에는 무덤을 토굴인 줄 알고 편안히 잠을 잤네. 또 어젯밤에는 마음을 굳건히 하니 귀신도 물리칠 수 있었지." 며칠 만에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원화가 말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갖기에 달린 것이라네. 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만 돌아가겠네." 원화는 신라로 되돌아가고 홀로 남은 의상은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탔단다.

상은 공부에만 몰두했지요. 어느날 당나라 대군이 신라를 치려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의상은 고국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돌아가기로 했어요. 도중에 선묘 남자의 집에 들렀으니 만나지 못한 채 서둘러 귀국하는 배를 탔어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선묘 남자는 의상을 지키고 싶다는 소원을 빌며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기적처럼 선묘 남자의 몸은 서서히 용으로 바뀌었는데... 의상을 돕고 지킨 선묘 용은 이제 부석사의 수호신이 되었답니다." -본문 중에서

"신라시대 의상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려 당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마나 먼 뱃길에 별을 얻어 선묘 남자의 지극한 간호를 받았는데, 어느새 선묘 남자는 의상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나 부처님만을 모시기로 마음 먹은 의

신라의 고승 의상 대사는 화염종을 일으켜 한국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용이 된 선묘남자>는 부석사 창건설화인 의상 대사

와 선묘 남자의 이야기를 동화로 재연한 책이다. 선묘 남자는 의상 대사를 향한 이를 수 없는 사랑을 승화시켜 용이 돼 의상 대사를 돕고 지킨 설화를 동화로 재연한 책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nbul.com



용이된선묘남자
김춘옥 글
이선주 그림
불불
1만2000원

우리의 어머니, 바다로 초대합니다

바다 사나이의 바다에세이



바다와 어머니
조정제 지음
교음사
1만2000원

자가 10여 년전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북곡산 중간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와서 자연과 더불어 지낸 일들이 담겨있다.

제6부 '독도로 가는 길'과 제7부 '바다, 영원한 우리의 어머니'에서는 바다의 푸짐한 사랑과 적조 현상 등을 통한 바다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

저자는 "바다에 관련한 글들은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수필적인 문체로 표현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아무래도 서정성이 약하고 딱딱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책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다. 앞부분은 자연 속의 삶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에세이다. 이는 뒷부분에서 바다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자연주의 바다의 전주곡이나 서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책장을 열면 바다를 향한 저자의 초대장이 펼쳐진다.

한편, 책의 판매수입은 전액 '바다 살리기 국민운동'에 사용된다.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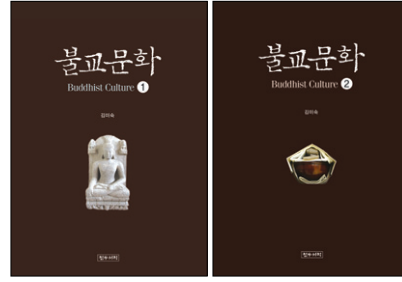
불교의 이해는 붓다 이해하는데서 시작
부처님 고향 인도의 문화부터 알아야

불교문화는 2500여 년 불교역사와 함께 한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웅장 수행 의례 사찰의 4개장으로 분류해 기술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김미숙 동국대 외래교수는 최근 <불교문화1 2>를 펴냈다. 책은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발원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널리 퍼져나간 불교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다. 때문에 책에서는 인도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생활상을 통해 불교문화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불교의 이해는 붓다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붓다의 고향,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책은 그러한 맥락에 잇대어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경전과 율장 속에 담긴 문화이야기와 수행, 기도, 의례 문화 등에 대한 해설을 장을 구분해 수록했다. 또, 전등사, 용주사 등 사찰을 문화이야기로 풀어놓

았다. 책의 경전과 율장 속에 담긴 문화 이야기에는 저자가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면면이 녹아 있다. 또한 해인사, 석굴암 등 국내 사찰 소개에는 주요 사진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로 풀이돼 흥미를 더한다. 저자는 "사키야무니 붓다는 부자, 초능력자, 성현 등 인도인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을 모두 이루었던 사람이다. 그 위대한 삶을 찬탄하고 추종하는 마음들이 2500여 년 불교문화라는 거대한 바다를 채워놓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 책은 그 대양 언저리에 발을 담가 본 몇 방울의 거품에 불과하다."



불교문화1, 2
김미숙 지음
정우서적
1만6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크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5	무문관 참구	정휘옥, 김시업	민족사
6	마음수업	이광정	휴
7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시토타 니루야 외	운주사
8	젊은 날의 깨달음	해민	클리어마인드
9	불교 문화로 읽는다	자현	민족사
10	허공을 부수어라	묵산	비움과소통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흥화선사, 홍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 유형자
69세 여성
보통키

절에서 공양주 보살을 하고 있습니다.
처를 모시고 편히 살것입니다.
대덕스님 및 불자님께서서
010-5325-9477로 연락 주시면
보답(일백만원) 하겠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업
사찰 전기공사업
태양열 겸용 보일러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